

증권가도 '코인' 바람... 지분 투자에 리포트 발간까지

업비트 두나무, 상장 검토소식에 지분 보유 한화투자증권 상한가 SK증권·하나금융 등 리포트 발간 美선 펀드 등 투자상품 출시 예고



SK증권의 가상화폐 관련 리포트 표지. /SK증권

가상화폐 가격이 급등하자 증권사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가상화폐거래소에 지분 투자를 했던 한화투자증권이 상한가를 기록하고, 증권사리서치센터가 가상화폐 관련 리포트를 내놓는 등 변화가 감지된다.

제도권 밖 취급을 받던 가상화폐 시장은 최근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생태계를 확장해 나가고 있다.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 커피 업체 스타벅스, 핀테크 업체 페이팔 등이 결제 수단으로 가상화폐를 도입하겠다고 선언했다. 국내에서는 다날핀테크가 CU,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이마트24 등 대형 가맹점과 제휴를 맺어 페이코인(PCI)으로 결제가 가능한 상태다.

◆한화투자증권, 두나무·크로스앵글 투자

7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업

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직상장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한화투자증권 등 두나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주가가 덩달아 상승하기 시작했다.

두나무 관계자는 상장설에 대해 "회사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은 상태"라며 "아직까지 결정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한화투자증권은 지난 2월 월컴이 보유한 두나무 지분 6.2%를 583억원에 사들였다. 전문가들은 두나무의 기업 가치를 미국 가상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

스와 비교했을 때 20조원까지 내다보고 있다. 만약 두나무가 20조원의 기업 가치를 인정받게 된다면 6.2%를 보유한 한화투자증권의 지분 가치는 1조2400억원으로 추산된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한화투자증권의 주가는 두나무 상장 소식이 전해진 지난달 30일부터 36.13% 급등했다. 지난 6일에는 상한가를 달성하기도 했다. 또 한화투자증권은 지난해 가상자산 정보포털 쟁글(Xangle) 운영사인 크로스앵글에 40억원 규모를 투자하기도 했다.

한화투자증권 관계자는 두나무 지분

투자 배경에 대해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발로 인해 디지털 기술이 크게 발달해 핀테크 기술 기업의 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며 "두나무는 업비트 외에도 증권플러스와 증권플러스비상장 등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으며, 블록체인 기술도 갖고 있어 투자를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상화폐 관련 리포트를 작성하는 증권사도 늘고 있다.

SK증권의 경우 한대훈 연구원이 '디지털 커런시 워치(Digital Currency Watch·가상화폐 살펴보기)'라는 제목으로 정기적으로 리포트를 작성하고 있다.

하나금융투자와 현대차증권 등도 비정기적으로 가상화폐 관련 이슈를 리포트를 통해 다루고 있다.

◆美은행, 가상화폐 투자상품 출시예고

가상화폐에 대한 기관들의 관심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다. 골드만삭스와 모건스탠리 등이 가상화폐 관련 상품을 내놓는다고 예고했다.

지난달 미국 최대 IB인 골드만삭스

는 오는 4~6월 중 비트코인 투자 상품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비트코인 현물과 파생상품을 토대로 투자 상품을 제공할 계획이다.

메리 리치 골드만삭스 디지털자산 글로벌 대표는 CNBC와 인터뷰에서 "투자자산 2500만달러(282억원) 이상의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암호화폐 상품을 판매할 것"이라며 "이번 결정은 비트코인 투자를 원하는 고객 수요에 대응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모건스탠리는 고객 자산운용에 비트코인 투자를 허용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고액자산 고객에게 '비트코인 펀드'를 출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단, 회의적인 시각도 여전하다.

지난달 22일(현지시간)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은 국제결제은행(BIS) 행사에서 "가상화폐는 변동성이 매우 크다"며 "Fed는 가상자산이라고 부르는 것을 선호한다"고 밝혔다. 가상화폐의 변동성이 커 가치를 저장하는 화폐의 기본적인 기능을 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박미경 기자 mikyung96@metroseoul.co.kr

주한 베트남 대사 만난 나재철 금투협회장

“규제개선 협의 등 양국 자본시장 협력 강화”

국내 16개 금투회사 현지 운영 업계 자본시장 교류 기대감 커



7일 금융투자협회에서 나재철 금투협회 회장(오른쪽), 응우옌 부퐁(NGUYEN VU TU NG) 주한 베트남 대사가 간담회를 가졌다. /금융투자협회

나재철 금융투자협회 회장이 7일 금융투자협회에서 응우옌 부퐁 주한 베트남 대사와 간담회를 갖고, 양국의 금융투자 산업간 투자 확대 및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응우옌 부퐁 주한 베트남 대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한국과 베트남 양국이 견고한 경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한국이 베트남의 1위 투자국이며, 베트남이 한국의 4위 교역국인 만큼 베트남의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한국 금융투자업계 교류에 대해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금융투자협회는 응우옌 베트남 대사에 한국 자본시장의 발전상과 회원사들의 글로벌 진출 현황 및 투자 관심사항에 대해 설명했으며, 최근 베트남 현지 회사 법인들과의 온라인 간담회를 통해 청취한 현지 비즈니스 관련 건의

사항을 전달했다. 베트남은 중국과 함께 한국 금융투자업계가 가장 많이 진출한 해외 지역으로 증권사 6개와 자산운용사 10개 등 총 16개의 국내 금융투자회사가 베트남에서 현지법인과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 글로벌 신용평가사의 분석에 따

르면 베트남의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타격이 다른 지역에 비해 크지 않으며, 올해 경제 성장률은 8.6%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금투협은 지난해부터 글로벌 웹세미나를 통해 해외 현지 시장분석 및 투자 기회 발굴의 기회를 시장참가자들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웹세미나와 함께 주한 외국대사관들과도 정기적인 교류나 온라인 행사 등을 진행하고 있다.

나재철 금투협회장은 "응우옌 대사와의 간담회를 통해 베트남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한국 금융투자업계와의 협력에 대한 기대가 크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었다"며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개선될 경우 베트남증권위원회(SSC)와 MOU 체결을 통해 양국 자본시장 협력은 물론 국내 기업의 베트남 증시 상장과 국내 금융투자회사의 베트남 비즈니스 확대를 위한 규제 개선 협의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미경 기자 mikyung96@

한화건설 '그린 디벨로퍼' 도약 풍력발전·수처리 등 중점 육성

미래성장동력 친환경 사업 강화

한화건설이 친환경 사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삼고 '그린 디벨로퍼'로 도약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화건설은 이를 위해 풍력발전사업과 수처리 분야 등 환경사업에서 단순 시공사를 넘어 국내 톱 티어(Top-tier)의 개발회사를 목표로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7일 밝혔다.

한화건설은 지난 2013년부터 추진해 왔던 풍력발전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해 말 대표이사 직속의 풍력사업실을 신설하고 전문 인력을 총원하는 등 경쟁력을 강화했다. 풍력발전사업은 입지 선정, 풍황조사부터 시작해 실제 착공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하므로 장기적인 투자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한화건설은

지난해 76MW급 영양 풍력 발전단지(3.45MW급 22기)와 25MW급 제주 수망 풍력 발전단지(3.6MW급 7기)를 성공적으로 준공한 바 있다. 또한 90MW급 양양 수리 풍력 발전단지를 비롯해 영진, 영월 등에 총 100MW 규모의 풍력 발전단지 조성을 위한 사업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화건설은 축적된 풍력사업 EPC(설계, 조달, 시공 일괄)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점차적으로 개발과 운영, 투자까지 주관하는 풍력사업 포트폴리오의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다.

한화건설 컨소시엄은 올해 1월 총 사업비가 7290억원에 달하는 대전 하수처리장 시설현대화 민간투자사업의 우선 협상자로 선정되며 그 동안 쌓아온 대규모 환경사업 수행 역량을 증명했다.

/정연우 기자 yw964@

이석기 교보증권 대표, 교통안전 캠페인 동참

이석기 교보증권 대표이사(사진)가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에 7일 참여했다.

이 챌린지는 어린이 보호 교통문화 정착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대한 참여형 캠페인이다. 지난해 12월부터 행정안전부가 주관해 진행하고 있다.

캠페인 진행은 참여자가 어린이 교통안전 표어 팻말과 함께 SNS 인증을 하고 다음 참여자를 지목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대표는 지난달 한영회계법인 윤석진 부대표 지목을 받아 캠페인에 동참하게 됐다. 그는 다음 참여자로 안병현



이석기 교보증권 대표이사(사진)가 7일 어린이 보호 표어 팻말 사진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교보증권

교보문고 대표, 강영욱교보리얼코 대표, 선종학 교보교육재단 이사장을 지목했다. /송태화 기자 avin@

신한금융투자 고객관리 플랫폼 '싱크' 구축

개인-기업고객 차별적 솔루션 제공

신한금융투자가 7일 급속하게 변화하는 금융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통합 고객관리 플랫폼인 싱크(SINC: Simple, Intuitive, Neo CRM)'를 구축했다.

신한금융투자는 '싱크(SINC)'를 통해 영업 관리 절차의 표준화 및 영업 유형별 맞춤형 관리, 내부 시너지 극대화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객에 대한 이해를 높여 개인 및 기업고객에게 차별적인 금융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다.

신한금융투자 '싱크(SINC)'는 기존에 개인 및 기업고객 각각 운영하던 고객관리 플랫폼을 하나로 통합했다. 동일한 이용체계를 통해 개인 기업 간 다층적인 고객관리가 가능하게 됐으며,

고객관리에 필요한 모든 요소를 한 화면에 구현한 '360° View'가 적용돼 쉽고 간편하게 고객관리를 할 수 있다.

또 업계 최초로 지식 공유(Knowledge Sharing) 체계를 도입했다. 기업, 인물, 딜 등의 정보 제공과 직원 간 경험 공유로 딜 소싱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인공지능(AI) 기반 금융 데이터 분석 솔루션인 '딥서치'를 탑재해 기업의 부채비율, 대출현황 등 전방위 정보를 파악해 고객발굴 및 맞춤형 영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박미경 기자